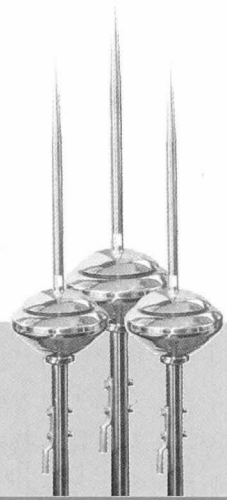


피뢰침 업계의 블루오션 “ElecHippo(전기먹는 하마)”



블루오션이라는 단어가 연일 마스크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점점 다변화·복잡화 되어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블루오션’이란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경영전략’이다. 용진기업은 이온방사형 광역피뢰침인 ‘ElecHippo(전기먹는 하마)’의 개발로 인해 블루오션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기존의 광역피뢰침은 주로 프랑스와 스페인, 일본 등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했었지만, ‘ElecHippo’의 개발로 광역피뢰침을 국산화 한 것이다.

광역피뢰침이란 낙뢰를 치는 뇌운이 접근할 경우 내부 전자회로에서 이온을 먼저 발생시켜 조기에 낙뢰를 흡수, 대지로 배출시키는 외부 피뢰보호설비이다.

광역피뢰침과 일반피뢰침과의 가장 큰 차이는 낙뢰로부터의 보호범위이다. 낙뢰를 유도하는 스트리머 발진 속도가 주변 물체보다 빠르기 때문에 보호 대상물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면 반경 약 100m에 달하는 보호범위가 형성된다. 뇌격시 일반 피뢰침으로 보호되지 않는 고층건물 측면이나 직격뢰로부터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보호범위의 광역성으로 인하여 학교 및 인텔리전트 빌딩 등에 앞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용진기업에서 개발한 ‘ElecHippo’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광역피뢰침으로써 전자회로 전원은 뇌운에 접근에 의한 지상 전계강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배선이나 충전기가 필요 없고, 설치공사, 유지보



ElecHippo(전기먹는 하마)의 제조모습



자재창고(1,000여개 이상의 물품이 있다고 한다.)

수가 쉬운 것이 큰 장점이다.

용진기업은 1984년 양천구 목동에서 '의진금속'이란 상호로 노출박스, 엔트런스 캡, 장손박스 등 전기 배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작하였다. 그 후 1992년도에 용진기업으로 상호로 변경하고 피뢰침 생산을 개시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였고, 오늘날 광역피뢰침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광역피뢰침 개발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상원 박사팀의 공이 매우 컸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최상원 박사와 인연이 되어 지금의 광역피뢰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광역피뢰침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세계최고·세계 유일의 광역피뢰침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광역피뢰침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인다. 앞으로 건물이 밀집화·고층화 및 인텔리전트화 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규정의 강화로 광역피뢰침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체에서도 코엑스에서 26일부터 개최되는 '2006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을 계기로 'ElecHippo(전기먹는 하마)'의 홍보에 더욱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ElecHippo'의 공급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북경에 지사호점을 개설하였고 낙뢰가 많은 동남아 지역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광역피뢰침의 본 고장인 유럽까지 'ElecHippo'를 진출시킨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